

이흥노 교수, 톱저널 IEEE Trans. on Cybernetics

편집위원 선임

- 인공지능, 블록체인, AI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



▲ 지스트 이흥노 교수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흥노 교수(ITRC 블록체인 지능 융합센터 센터장)는 세계적 톱저널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TC)*의 편집위원에 선임됐다.

*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TC)**: Journal Citation Reports(JCR)에 의하면 TC의 가장 최근 (2020) Journal Impact Factor는 11.448인 것으로 나타났고, 저널 임팩트 팩터로 본 랭킹은 세계 톱 4% 수준이다. 즉,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부분에서 139개 저널 중 6위 (96.04%), Automation&Control Systems 부분에서 63개 저널 중 2위(96.62%)에 랭크되었다.

이흥노 교수는 인공지능, 연합학습,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금융, AI금융 분야의 편집위원으로서 논문 게재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자 선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ociety(이하 SMC학회)에서 출판하는 트랜스액션 저널은 Cybernetics, Humans and Machines,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등이 있다. SMC학회는 1960년대에 생겨난 학회이며, 탄생 초기에는 크게 시스템구조, 인간의 지혜, 사이버네틱스 제어 등 얼핏 듣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분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연구를 추구하였다.

SMC학회는 노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기반으로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라는 저널을 1971년에 시작했다. 그 이후로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바이오메디컬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공학, 적응시스템, 대규모 사회 경제적 시스템, 인간-기계 시스템 및 시스템 과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논문을 게재해왔다.

*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 1894~ 1964)**: MIT 공대의 교수로서 수학자, 전기공학자, 철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시스템 제어, 컴퓨터과학, 생물학, 신경과학, 철학 및 사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및 기계와 관련된 통신 과학인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의 창시자로 알려졌다. 그는 모든 지능적 행동은 피드백 메커니즘의 결과이며, 피드백 메커니즘은 기계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은 현대 인공지능 개발을 향한 중요한 초기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흥노 교수는 "인공지능은 효율과 성장을 추구하는 기술이며 블록체인은 분배의 기술이라며, 블록체인은 짚어내지 못하는 글로벌 암호화폐를 담아내어 양극화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 세계를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하나의 경제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히며 "편집위원으로서 관련 학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흥노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블록체인지능융합센터(BIC)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영지식 센싱, 암호인증,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융합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BCD 기술(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클라우드(Cloud), 데이터(Data))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암호보안 인증 체계, 데이터-네트워크 관리 체계 및 IoT 장치 관리 체계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